

정신세계를 일깨워버린 괴물 같은 <사랑>

연극

LUV

The first classic

2013. 10. 3 (목) ~ 10. 13 (일) 사직동 미리내소극장
평일 오후 8시 공휴일 (10/3, 10/9) 토, 일 오후 5시 (예매 504-2544)



김유진

권민주

김상호

Synopsis

정체성을 잃어버린 괴물 같은 <사랑>

고교시절 절친했던 두 친구 밀트와 해리는 15년 만에 우연히
길모퉁이에서 만나게 된다.
두 친구에겐 15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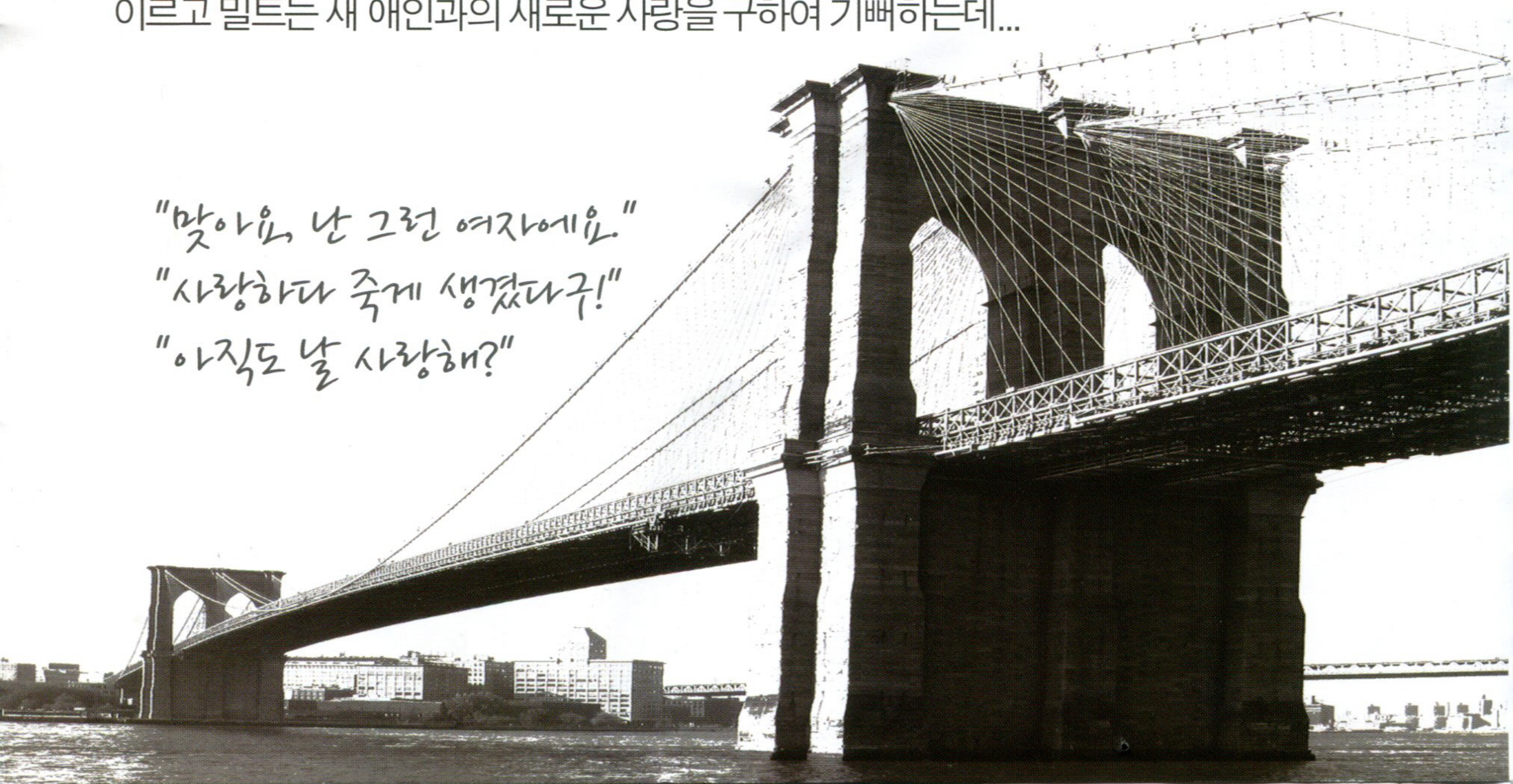
밀트는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약삭빠른 처세와 현실에 집착하면서
아파트 투기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었고, 해리는 이상을 찾으며 현실과의
부적응으로 자포자기적인 생을 살아간다.

마침 해리가 자살하려는 순간 밀트를 만나게 되고 밀트는 해리에게 사랑을
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다.
밀트는 명문대학 출신의 지성과 미모를 갖춘 부인 엘렌과의 행복하지 못한
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새 애인과의 결혼을 위해 계획적으로 엘렌을 해리에게
소개한다. 엘렌과 해리는 밀트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에까지
이르고 밀트는 새 애인과의 새로운 사랑을 구하여 기뻐하는데...

"맞아요, 난 그런 여자에요."

"사랑하다 죽게 생겼대구!"

"아직도 날 사랑해?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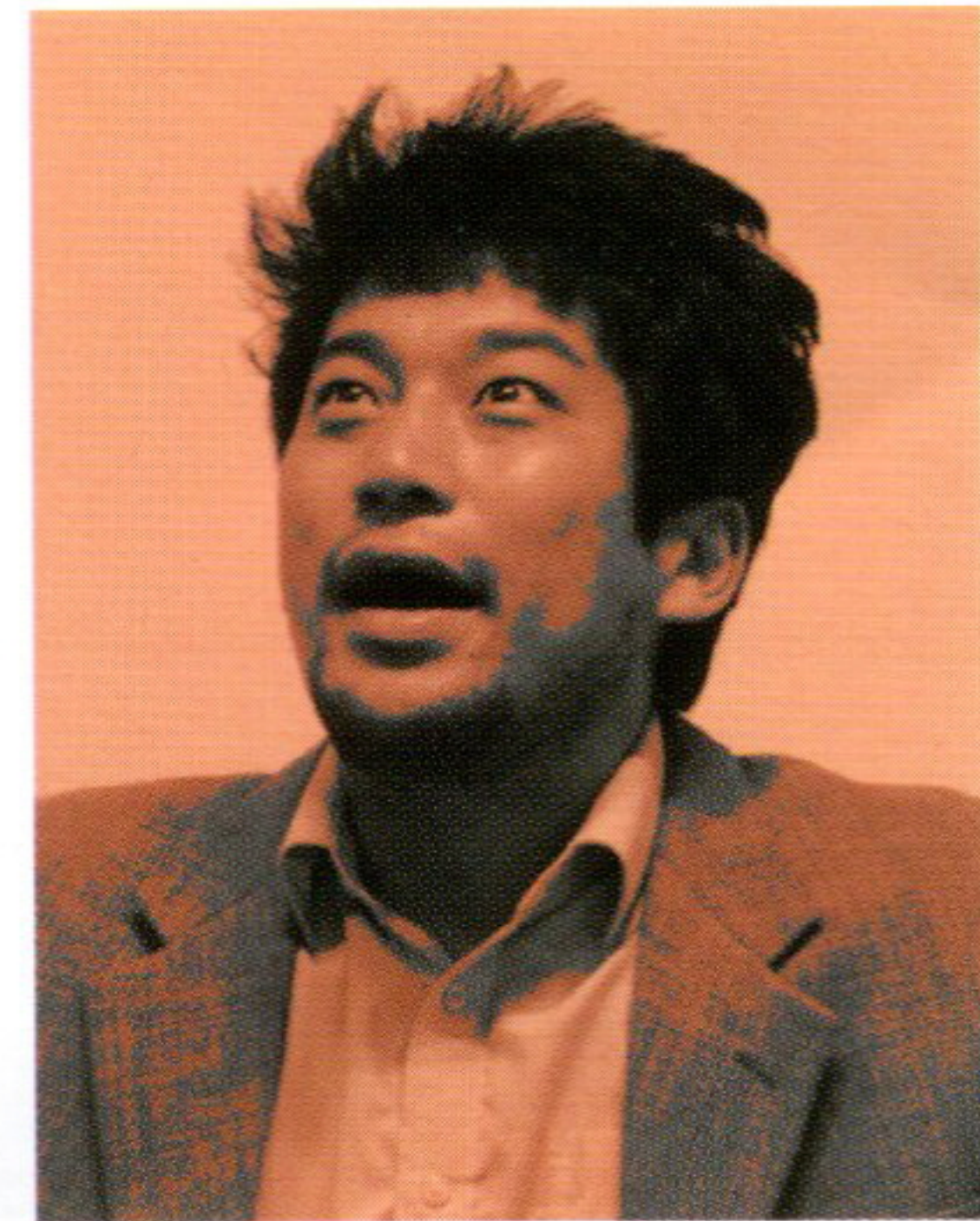
Cast



구민주 (엘렌 맨빌 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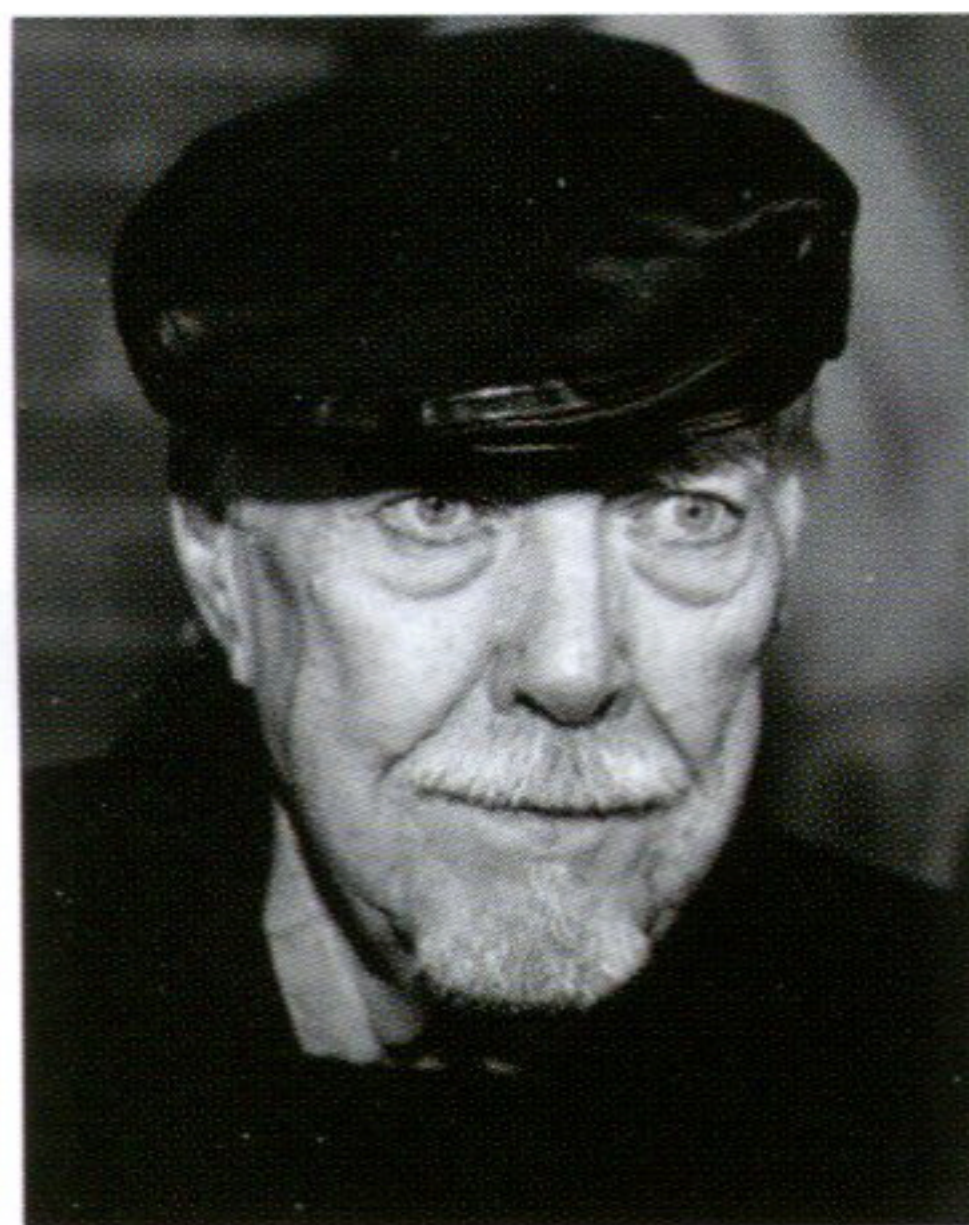


김우진 (밀트 맨빌 역)



김상호 (해리 벌린 역)

Writer



머레이 쉬스갈

Director



호 민

Staff

기획 최동민
음악 심민정
만드는 사람들
정형철, 김한진
최현영, 배진화

연출의 글

사랑의, 사랑에 의한, 사랑을 위한.. 현대의 모든 사랑 예찬론자들에게 던지는
사랑에 대한 역설!

작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<LUV>로 쓰고 <LOVE>로 읽었다.

<루브>는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인 토니상을 그에게 안겨주었다.